

'반값 등록금' 요란 떨어니... 고작 3만원 내렸다

올 신학기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0.46% 인하 광주·전남 대학 0.08%... 학부모들 "또 속았다"

'반값 등록금'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정작 올해 등록금은 거의 내리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망감과 함께 여전히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2013학년도 등록금은 전년도 인하율

1000~2000원 정도 인하에 그쳤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전년도 인하율이 4.5%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사실상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이다.

25일 대학정보공시 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750만원을 넘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대·동신대·광주대·남부대·호남대·광주여대·세한대·전남대·순천대·목포대(등록금 순) 등 광주·전남 지역 10개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571만원이었으며 이중 사립대는 645만원, 국립대는 398만원이었다.

주요 대학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조선대로 678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국립대인 목포대로 389만원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의 평균 등록금은 2011년 599만원→2012년 572만원→2013년 571만원 등으로 내려 최근 2년 동안 5%도 내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3개

교의 주요 공사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73개 4년제 일반대학의 2013학년도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 8000원으로 전년(670만9000원)보다 3만1000원(0.46%) 인하했다. 2012학년도 등록금 인하율은 4.3%였으나 이번 학년도 인하율은 전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립대 등록금의 인하율이 0.47%로 국·공립대의 인하율 0.19%보다 컸다. 하지만 절대 액수에서 사립대는 733만9000원으로 국·공립대 409만6000원의 1.8배나 됐다.

대학별로는 을지대의 평균 등록금

이 852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연세대(850만7000원), 한국항공대(847만6000원), 이화여대(840만6000원) 등의 순이었다.

조선대학교 사회대의 한 학생은 "각종 장학금을 늘려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하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등록금 자체를 조금이라도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등록금은 경남·경북지역 대학의 90%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면서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들 힐링센터서 닥터피쉬 체험
25일 개장한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주힐링기든센터' 닥터피쉬 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힐링기든은 장미기든, 생태수족관, 휴게실 등 830㎡의 규모로 조성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과연 사랑이었을까

해남군 공무원, 여중생과 5개월간 성 관계

"서로 좋아했다"... 경찰은 미성년 유인 입건

50이 다된 시골 공무원이 신봉과 나이를 속이고 여중생(15)과 5개월여 동안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완도경찰은 25일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혼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적 성관계는 없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여중생도 "결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여 통 보낼 만큼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관계'를 과연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사

연은 이렇다. 둘은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여중생에게 자신을 35살 미혼 건축사라고 소개하고 접근했다. "34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여중생 키가 남성보다 크고 A씨도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자와 전화 통화를 거쳐 둘은 첫

만남 때 성관계를 갖고 지난 1월까지 승용차 안 등에서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성관계 후에는 2만~5만원의 용돈 명목으로 건넸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든 둘 사이가 갈라진 건 유달리 자신을 따르며 잦은 만남을 요구하는 여중생에게 부담을 느낀 A씨가 "다른 여자가 있다"며 거리를 두면서부터다.

A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중생은 급기야 청소년 상담사에게 "오빠와 결혼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 여고생 인니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털어놓고 상담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돈을 준 것도 "대가 없이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나이, 신분 등을 속이고 성관계 때마다 용돈을 준 점에 주목,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60대 女 변사 원인 조사

25일 오전 3시에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A(69)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A씨의 얼굴에서는 심하게 멍든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싸움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넘어져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도가니' 前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전자발찌 부착도...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소 진행중

전 국민을 분노케했던 영화 '도가니' 속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한 상고심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 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결과를 수화통

역인을 통해 청각 장애 방청객들에게 설명하게 했다. 김씨는 2005년 4월경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전해한 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나 세

부 내용에 대한 묘사, 심리전문가들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주 인화학교 총동문회장 서만길 씨는 판결 뒤 "'도가니' 사건"인 만큼 일반 사건과 달리 차별화해 더 큰 벌을 줘야 하는 데 일반적인 처벌을 내린 점은 아쉽다. 형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에서 진행중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80억 횡령 관련공무원 징계 강등 아닌 징직... 완화 논란

전남도가 여수시청 80억대 공금횡령사건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으나 일부는 감사원 권고보다 징계 수위가 후퇴해 논란이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권고한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했다.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모(48·8급)씨는 파면됐다.

그러나 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6급 김모씨는 애초 감사원이 7급 강등을 권고한 바 있어 징계 완화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에 재의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4대악 척결 패러디 동영상 '젠틀폴'

○전남 경찰이 4대 악척결을 주제로 가수 싸이의 '젠틀폴'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눈길.

○2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경찰청이 자체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패러디 영상 '젠틀폴'은 홍보담당관실 직원이 싸이 역할을 맡고 전 직원 출연해 청사 앞에서 '시건참춤'을 추는 등 경찰관들이 직접 연기·촬영·편집했다는 것.

○바바리엔, 폭력 남관,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게 응징당하는 내용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면서 러닝머신 위 여성을 넘어지게 하는 등 '원조' '젠틀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장면도 담겨져 네티즌들의 관심.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피로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신제품 기적궁인기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핀 X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www.indara.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오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안정피로는 보통 사람이란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함을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신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서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이 움츠러들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쬐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물 흘리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환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박,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인다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통-9818호 (공고)